

한국어판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측정도구(S-EBPQ)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김선경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s(S-EBPQ)

Sun Ky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Upton, Scurlock-Evans 와 Upton 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측정도구(S-EBP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학습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209명의 자료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기존의 도구와 동일한 4 요인, 21 문항이 확인되었다. 도구의 설명력은 67% 였고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927 이었다. 한국어판 S-EBPQ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역량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것이다. 또한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간호대학의 근거기반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것이며 이는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근거기반실무, 도구, 타당도, 신뢰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S-EBPQ) which developed by Upton, Scurlock-Evans, and Upton. Data were collected from 209 nursing students with previous experience of education in evidence-based practice and clinical placement. Using SPSS 25.0, construc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evaluated. The Korean version of S-EBPQ consisted of 21 items in four domains. The measurement explained 67.0% and the reliability using Cronbach's alpha was .927. The Korean version of S-EBPQ can be used to evaluate the ability of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tool could be also us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vidence-based practice which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 Nursing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Measurement, Validity, Reliability

1. 서론

근거기반실무(Evidence-based Practice, EBP)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시, 잘 설계된 연구로부터 도출된 근거, 임상경험과 판단, 대상자의 선호,

주변의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를 의미한다[1]. 간호에서 근거기반실무는 개개인의 환자를 위해 명확하고, 판단력있게 최선의 근거를 활용하여 간호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2].

*Corresponding Author : Sun-Kyung Kim(skKim@mokpo.ac.kr)

Received December 27,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15,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간호교육에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은 향후 간호실무에서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꼭 교육되어야 할 요소로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간호에서의 근거기반실무 능력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며 보건의료환경에서 최상의 과학적 근거 및 활용가능한 자원, 실무자의 전문성,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고려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게 한다[3]. 간호에서도 근거기반실무 역량이 강조되며[4],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임상지침의 도입과 개발에 근거기반실무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5]. 또한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와 병원간호사회에서는 근거기반간호 실무지침이 제정되고 있다[6].

근거기반간호에서는 임상 실무에서 환자중심적 사고와 주어진 임상환경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적 근거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있다[7]. 근거기반간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상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찾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들은 자료를 검색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과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상에서는 가장 최신 근거가 사용되고 이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단기간 학습으로 가능하지 않고 체계적인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학부과정부터의 준비가 필수적이다[9]. 간호대학생 대상의 근거기반실무교육은 학생들에게 근거기반실무관련 지식의 향상과 더불어 졸업후 다양한 연구에 대한 소비자로서 근거기반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간호사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최상의 간호제공을 가능하게 한다[10-11].

간호환경은 근거기반실무 문화를 결정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과정에서의 근거기반실무 교육은 능력있는 간호사 배출을 통해 근거기반 실무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10]. 교수자들의 근거기반간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인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실무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12].

국내의 여러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이론과 실습에서 근거기반실무관련 교육을 통해 최상의 근거(best

evidence)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실무에서 적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3]. 근거기반간호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한 학술대회, 근거기반간호를 위한 문헌검색, 연구결과 활용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실습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다[12]. 이러한 근거기반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최선의 근거를 확인 및 평가하여 임상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측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근거기반측정도구를 통해 간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의 마련을 통해 근거기반간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는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간호사 대상의 임상실무에서의 근거기반 활용에 대한 측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8]. 그러나 근거기반실무 측정을 위해 개발된 기존의 도구들은 간호사 대상의 근거기반실무평가 도구가 대부분이며[14] 학생대상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측정도구의 경우 특정문화권의 교과과정에 한정되게 개발된 도구만 존재하는 실정이다[15].

최근 Upton, Scurlock-Evans 와 Upton[8]에 의해 개발된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S-EBPQ)는 기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그 타당도가 검증된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EBPQ)[16]를 학생용으로 개정한 측정도구이다. 기존의 EBPQ는 간호사의 근거기반실무능력을 평가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로서 근거기반실무를 4가지영역(지식, 태도, 기술, 사용빈도)으로 측정한다. S-EBPQ는 기존 도구를 간호학생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호학생의 근거기반실무를 실무영역, 태도영역, 근거추출영역, EBP적용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S-EBPQ도구의 한국어 번안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를 세부 영역으로 측정함으로써 현재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근거기반 간호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알아보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

무 평가도구 S-EBPQ의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적합한 도구인지 평가하고 도구의 문화적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Upton, Scurlock-Evans 와 Upton(2016)[7]에 의해 개발된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S-EBPQ)을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후 이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J도, P시, D시, C도에 위치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 경험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 포함한 이유는 설문지에 포함되는 용어(예:PICO)와 내용이 근거기반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학생만 응답 할 수 있고,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수는 문항분석을 위해 권장되는 문항수의 5~10배수 이상을 권장하는 근거[17]에 의해 문항 수의(21문항)의 5배수인 105부를 초과하는 210부를 수집 하였고 그 중 미비한 1부를 제외한 20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S-EBPQ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S-EBPQ)는 최근 Upton, Scurlock-Evans 와 Upton[8]이 개발한 도구로서 기존의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EBPQ)[16]를 학생용으로 개정하였다. 총 21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영역은 실무영역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본인이 얼마나 근거에 기반한 실무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영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태도영

역으로 본인이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근거추출영역으로 근거를 찾아내고 간호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EBP적용영역은 실제 환자간호에 근거기반실무를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측정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자주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각 영역에서 Cronbach's alpha .765 ~ .912 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7 이었다.

2.3.2 EBP-COQ

Evidence-Based Practice Evaluation Competence Questionnaire(EBP-COQ) 도구[18] 역시 간호학생을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실무능력 평가도구로서 근거기반실무 지식(Knowledge) 6문항, 태도(Attitude) 13문항, 기술(Skills)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화된 검색식을 통해 기존의 문헌을 검색하고 문항을 추출한뒤 이를 간호대학생에 시범적용 후 최종 문항을 결정 하였다. EBP-COQ는 2013년에 개발되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측정도구로 활용되어 왔다[18-20].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거기반실무 지식, 태도,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8이었고 세부영역 당 신뢰도는 .756~.94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89 이었다.

2.4 연구절차

2.4.1 도구의 문화 맥락적 검증

도구의 사용을 위해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구 변안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영어권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를 통하여 한국어 도구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영어권 국가에서 간호학 학위와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수정이 요구되는 문항을 검토, 평가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이 후 번역의 검증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된 도구를 영문원본 도구를 본적이 없는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가 영문 도구로 역 번안 하였다. 역 번역된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영어권 국가에서 간호학 학위와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원도구와 비교하여 의미 전달의 왜곡이 없이 번역되었는지 일치도를 확인한 후 최종 한국어판 문항을 완성하였다. 또한, 도구 문항의 표현과 형태의 적절함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학 교수와 본 연구의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의 간호대학생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표현의 모호함이나 내용상에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번역 초안을 재수정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도에 위치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IRB no. MNUIRB)-20190903-SB-007-01).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12월까지 2달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자료수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와 함께 서명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연구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그만두고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서도 설명 하였다.

2.6 자료분석 및 통계적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의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로 문항분석을 위해 항목-전체 상관관계(Item total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문항의 상관계수가 0.3 이하인 경우 제외기준으로 하였다[21]. 두 번째 단계에서는 S-EBP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시행, 주 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은 Kaiser-Meyer-Olkin(KMO)지수가 .70이상,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통계적 유의성 (p<.05)로 확인하였다. Eigen value가 1 이상일 경우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에 대한 적재량이 .4이하인 경우 제외기준으로 삼았다[22]. 마지막으로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존의 한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왔던

근거기반실무 평가도구인 EBP-COQ와 전체 및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도구 전체의 내적일관성과 하위영역 항목에서의 내적일관성에 대한 확인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출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209)

Categories	Contents /Range	N(%) /M±SD
Age		25.89±7.28
Gender	Male	33(15.8)
	Female	176(84.2)
Satisfaction in Nursing	Totally dissatisfied	0(0)
	Not satisfied	10(4.8)
	Moderate	58(27.8)
	Satisfied	108(51.7)
Satisfaction in Clinical Placement	Very satisfied	33(15.8)
	Totally dissatisfied	1(0.5)
	Not satisfied	25(12.0)
	Moderate	62(29.7)
Perceived importance of nursing research	Satisfied	91(43.5)
	Very satisfied	30(14.4)
	Very low	1(0.5)
	Low	1(0.5)
	Moderate	20(9.6)
Level of interest in nursing research	High	97(46.4)
	Very High	90(43.1)
	Very low	6(2.9)
	Low	26(12.4)
GPA(Grade Point Average)	Moderate	64(30.6)
	High	79(37.8)
	Very High	34(16.3)
	>2.5	1(0.5)
S-EBPQ	2.5-2.99	15(7.2)
	3.0-3.49	96(45.9)
	3.5-3.99	73(34.9)
	≤4.0	24(11.5)
EBP-COQ	21~147	93.35±18.20
	25~125	79.46±8.59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BPQ-K

Factor	Item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1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4	.777	.208	.215	.153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5	.756	.204	.174	.145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2	.747	.236	.169	.028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1	.739	.254	.178	-.019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6	.731	.200	.243	.129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7	.727	.202	.252	.155
	Retrieving and reviewing evidence 3	.711	.230	.137	.183
2 Practice	Sharing and applying 2	.619	.149	.460	.143
	Practice 2	.180	.856	.097	.098
	Practice 1	.118	.801	.079	.075
	Practice 4	.330	.771	.203	.027
	Practice 3	.396	.745	-.005	.042
3 Sharing and applying	Practice 5	.305	.554	.429	.074
	Sharing and applying 3	.256	.027	.849	.166
	Sharing and applying 4	.301	.119	.749	.083
	Practice 6	.055	.387	.733	.159
	Sharing and applying 5	.539	.068	.601	.116
4 Attitude	Sharing and applying 1	.470	.036	.518	.234
	Attitude 2	.045	.096	.138	.843
	Attitude 1	.147	-.015	.329	.698
	Attitude 3	.434	.183	-.004	.597
Eigen value		5.51	3.40	3.31	1.85
Total variance explained (%)		26.3	42.5	58.2	67.0
Cronbach's Alpha		.921	.874	.844	.652
Cronbach's Alpha of S-EBPQ-K		.927			

Table 3. Concurrent validity of S-EBPQ-K

Contents	1	2	3	4	5	6	7	8	9
1.S-EBPQ-P	1								
2.S-EBPQ-A	.30**	1							
3.S-EBPQ-R&R	.59**	.44**	1						
4.S-EBPQ-S&A	.40**	.46**	.67**	1					
5.S-EBPQ-Total	.77**	.63**	.90**	.80**	1				
6.EBP-COQ-K	.44**	.45**	.54**	.45**	.60**	1			
7.EBP-COQ-A	.33**	.23**	.49**	.40**	.48**	.58**	1		
8.EBP-COQ-S	.27**	.21**	.49**	.30**	.42**	.38**	.36**	1	
9.EBP-COQ-Total	.46**	.42**	.63**	.49**	.65**	.93**	.74**	.64**	1

Note: *p<.05, **p<.01, P=practice, A=attitude,

R&R=retrieve and review, S&A=sharing and applying, K=knowledge, S=skill

3.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25.89±7.28이고 남학생의 비율은 15.8%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간호학 전공(95.2%)과 전공실습교육(87.5%)에서 보통이상의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99%의 학생이 간호연구의 보통 이상의 중요성을 표현하였고, 84.7%의 학생이 간호연구에 대해 보통이상의 관심을 표현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S-EBPQ의 평균점수는 93.35±18.20, EBP-COQ의 평균점수는 79.46±8.59였다.

3.1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KMO 지수는 .906 (Bartlett 구형성 검정 $p=0.000$), 총 설명력은 67.0% 였다. 모든 문항에서 .5이상의 요인 적재량이 확인되었고 요인적재량의 범위는 .518에서 .856이다. 하부요인별 신뢰도는 .652~.921 범위로 확인되었다.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영역과 동일하였다. 기존 근거의 나눔과 적용 영역의 Sharing & Applying 2(환자의 개별사례에 맞춘 정보적용) 문항은 근거의 추출과 검토 영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실무영역의 Practice 6(동료들과 정보공유) 문항은 근거의 나눔과 적용영역에 포함되었다.

3.2 준거타당도

한국어버전의 S-EBPQ의 하위영역은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상관계수 $r=.30 \sim r=.67$ 범위였다. 기존의 EBP-COQ도구의 총합과 S-EBPQ도구의 총합의 상관계수는 $r=.65(p<.01)$ 였다. 각 도구의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는 $r=.21 \sim r=.54$ 범위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한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능력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학생용 근거기반실무평가도구(S-EBPQ)[8]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버전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9명의 근거기반간호 관련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구의 구성타당

도, 준거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되어 최종 21개 문항과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구성되었다.

구성타당도 분석결과 모든 문항이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5이상이었고 설명력 67%로 근거기반실무에 대해 제대로 측정 가능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 S-EBPQ-K의 Cronbach's alpha는 .927로 기존의 EBP-COQ (Cronbach's alpha=.789) 보다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기존의 근거기반실무 측정도구로 활용되던 EBP-COQ의 경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지만[15] 문항도출을 위해 문헌검색만을 사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측정도구의 경우 실제 사용할 대상자에게 인터뷰 등을 통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그들의 상황 및 특성과 이해수준을 반영한 단어로 문항을 구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측정되게 된다[23]. 그러므로 향후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측정에 학생을 위해 개발된 본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도구는 각각 하부영역에서 문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응답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최하점과 최고점(1점과 7점)의 예시를 각각 들어주고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설명 후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를 의 서술평정척도보다 문항의 최저점수와 최고점수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기술하는 어의차별척도를 이용하여 (예: “근거기반실무는 시간낭비이다” 1점 ~ “근거기반실무는 전문적인 간호수행의 기본이다” 7점) 측정하였다. 태도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영역으로 리커트 척도보다 어의차별척도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24]. 반면 EBP-COQ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리커트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15] 문항의 특성에 따른 척도의 선택이 이용자들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측정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타당도 조사에서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하위항목과 일치하였다. 2개 문항 중 기존 실무영역(Practice)의 6번(동료들과 정보공유)문항이 근거의 나눔과 적용영역에 포함되었으며 실지 공유(sharing)이라는 단어가 문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며 나눔과 적용영역에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문항으로 기존 근거의 나눔과 적용 영역(Sharing & Applying)의 2번(환자의 개별사례에 맞춤형 정보적용) 문항의 경우 본 타당도 조사에서 근거의 추출과 검토 영역에 포함되었다. 문항의 특성상 환자의 개별사례에 맞는 근거와 이에 대한 검토에 초점으로 문항을 고려한다면 근거의 추출과 검토 영역에 적당한 문항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마 우리나라 근거기반 간호에 대한 교육은 아직 정착단계에 있으며 [25], 교육 방법 또한 최신의 과학적 근거에 초점을 두지만 환자의 개별 접근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우리나라 근거중심실무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환자중심간호(patient-centered care)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버전 S-EPBQ는 기존의 EBP-COQ[15]와의 상관관계에서, 도구 전체 뿐만이 아니라 하위 영역간에도 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어버전 S-EBPQ 도구가 기존의 도구와 구별되며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간호학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근거기반 실무능력에 대한 측정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각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근거기반 관련 교과목들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 가능할 것이다. 도구가 널리 활용되어 여러 학교에서 근거기반 교과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측정의 결과를 비교하여 효과가 높은 교과목을 벤치마킹, 학교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질 향상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개의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r=.30$ 을 넘지 않았으며 특히 두 도구의 동일영역인 태도(Attitude) 영역에서 $r=.23$ 의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S-EBPQ의 경우 태도영역에 3가지 문항만을 포함하며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함께, 수행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의문제기나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8]. 반면 EBP-COQ의 태도 영역의 경우 13문항으로 의사결정에서의 근거기반 실무의 중요성부터 논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까지 [15]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S-EBPQ와 EBP-COQ는 각각 태도영역에 대한 측정에 어의구별척도와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응답 수준이

달라 초래된 결과로 사료된다.

한국어 버전 S-EPBQ에서 4개의 세분화된 하위영역에 대한 적절한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 간호교육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8].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운영되는 근거기반 관련 교과목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시 도구의 하위영역을 활용한다면 각각의 영역에 대한 달성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고 이를 반영한 교과목 개선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효과적인 근거기반 실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배출은 향후 간호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26], 이를 통해 환자는 최상의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영국에서 간호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간호 측정도구(S-EBPQ)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판 S-EBPQ이 한국 간호대학생에게도 타당한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원도구와 마찬가지로 4개 영역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에서 모두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S-EBPQ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근거기반실무 능력 뿐 아니라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 근거기반실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년도 국립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2019-0243호)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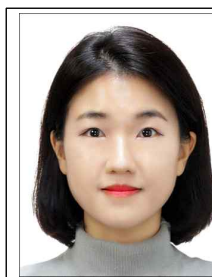
- [1] M. H. Park. (2006).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evidence based nursing. 2nd ed. Seoul: Koonja.
- [2] G. L. Ingersoll, (2000). Evidence-based nursing: what it is and what it isn't. *Nursing outlook*, 48(4), 151-152. DOI: 10.1067/mno.2001.118057
- [3] B. M. Melnyk, E. Fineout Overholt, C.

- Stetler, & J. Allan. (2005). Outcom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rom the first US evidence based practice leadership summit. *Worldviews on Evidence Based Nursing*, 2(3), 113-121.
DOI: 10.1111/j.1741-6787.2005.00022.x|
- [4] B. M. Melnyk, & E. Fineout-Overholt, (2011). Evidence-based practice in nursing & healthcare: A guide to best practice.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5] D. A. Park. (2018). Evidence Based Healthcare and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Evidence and Nursing*, 6(1), 7-10.
DOI: 10.5124/jkma.2013.56.2.111
- [6] M. O. Gu, Y. A., Jo, Y. Eun, I. S. Jung, S. H. Lee, & H. J. Seo. (2016). Introduction to evidence-based nursing. Seoul: Fornurse.
- [7] H. Park, & K. S. Jang. (2016). Structural model of evidence-based practice implementa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5), 697-709. DOI:10.4040/jkan.2016.46.5.697
- [8] P. Upton, L. Scurlock-Evans, & D. Upton. (2016). Development of the student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S-EBPQ). *Nurse education today*, 37, 38-44.
DOI:10.1016/j.nedt.2015.11.010
- [9] M. H. Park. (2011). Effects of evidence based practice integrated critical care clinical practicu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46-354.
DOI:10.5977/JKASNE.2011.17.3.346
- [10] K. S. Jang, E. A. Kim, & H. Y. Park. (2015). The effects of an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1), 119-128.
DOI:10.5977/jkasne.2015.21.1.119
- [11] M. H. Park. (2013). Implementation of evidence based nursing education into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um: outcome evaluation and diffusion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1), 39-47.
DOI:10.1111/jkana.2013.19.1.39
- [12] M. Choe, K. S. Bang, Y. H. Park, Y. & H. J. Kang. (2011).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in Korea.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8(2), 129-138.
- [13] Korean Nurse Association. (2016). Resources: Educational institution status. Retrieved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nurse_edu.php
- [14] M. P. McEvoy, M. T. Williams, & T. S. Olds. (2010).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a trans-professional evidence-based practice profile questionnaire. *Medical teacher*, 32(9), e373-80.
DOI:10.3109/0142159X.2010.494741
- [15] M. Ruzafa-Martinez, L. Lopez-Iborra, T. Moreno-Casbas, & M. Madrigal-Torres.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petence in evidence based practice questionnaire (EBP-COQ) among nursing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13(1), 19.
DOI:10.1186/1472-6920-13-19
- [16] D. Upton, & P. Upton. (2006).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questionnaire for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4), 454-458.
DOI:10.1111/j.1365-2648.2006.03739.x
- [17] E. O. Lee, N. Y. Im, H. A. Park, L. S. Lee, J. I. Kim, J. I. Bae, J. I., et al. (2009). Nursing/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Sa.
- [18] J. S. Kim.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evidence-based practice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

-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19] M. H. Choi, Y. H. Kim, & H. M. Son. (2016). Factors influencing evidence-based practice attitude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2(3), 274.
DOI:10.5977/jkasne.2016.22.2.274
- [20] Y. H. Ha, M. Lee, & Y. J. Chae. (2016).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on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347-356.
DOI:10.14400/JDC.2016.14.11.347
- [20] A. B. Costello, & J. W. Osborne.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22] E. Ferguson, T. Cox (199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Users' Gu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 Assess*, 1, 84-94.
DOI:10.1111/j.1468-2389.1993.tb00092.x
- [23] R. Luyt, (2012). A framework for mixing methods in quantitative measurement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vision: A case study.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6(4), 294-316.
DOI:10.1177/1558689811427912
- [24] O. Friberg, M. Martinussen, & J. H. Rosenvinge. (2006). Likert-based vs. semantic differential-based scorings of positive psychological constructs: A psychometric comparison of two versions of a scale measuring resil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5), 873-884.
DOI:10.1016/j.paid.2005.08.015
- [25] Y. Kang, & I. S. Yang. (2016). Evidence-based nursing practice and its correlates among Korean nurses. *Applied Nursing Research*, 31, 46-51.
DOI:10.1016/j.apnr.2015.11.016
- [26] A. R. Nam, E. H. Lee, J. O. Park, E. J. Ki, S. M. Nam, & M. M. Park. (2017). Effects of an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program on EBP practice readiness and EBP decision making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3), 239-248.
DOI:10.11111/jkana.2017.23.3.239

김선경(SunKyung Kim)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정보, 메타분석, 도구타당도검증
· E-Mail : skkim@mokpo.ac.kr